무소속 연대 등 정치 세력화…광주 민심이 관건

위기의 새정치민주연합

호남정치 어디로

인재풀 확보 과제…내년 총선 이전 성사 주목

야권 재편 큰 파괴력…새정치 등 정치권 촉각

㊥ 천정배 신당 가능성은

야권의 심장부 광주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천정배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과 한판 대결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천 의원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그동안 재보선 연패, 무기력한 야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천 의원의 신당 창당 언급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천 의원은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뉴 DJ(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을 만한 인물)을 만들어 광주와 호남에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키우겠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호남 30석을 놓고 새정치연합과 한판 대결을 펼치겠다"며 신당 창당 모색을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곧바로 신당 창당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에 누적돼 온 광주시민들의 실망감이 천 의원의 득표에 적극적으로 반영됐을 뿐 천 의원에게 '신당 창당'이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신당 창당은 곧 '야권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품고 있는 광주 민심이 쉽사리 신당 창당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 내년 총선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당 창당을 위한 자금과 경쟁력 있는 인물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신당 창당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천 의원은 당장 신당 창당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정치이념'을 중심으로 한 세력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전패한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친노계와 비노계가 대립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당내 이탈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천 의원의 세 규합에 힘이 실릴지도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내 친노 세력인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적지않은데다 정치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인사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당수 야권 인사들에게 새로운 탈출구를 찾게하는 압박 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천 의원이 세 규합을 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최소한 광주지역 8곳 선거구에 무소속 연대를 꾸려 새정치민주연합과 일전을 치를 가능성이다. 광주 민심이 이번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의 변화를 요구한 만큼 승산이 있는 싸움이 될 수 있어 현실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는 방안이다.

천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반(反)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광주 민심을 적극 활용하고 새정치민주연합내 비노 인사 등을 규합, 야권재편에 나설 경우 그 파괴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천 의원과 함께 할 중심 인물이 나서지 않는데다, 총선 전까지 정치 세력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신당 창당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파괴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도 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천 의원을 지지하고 나선 지역 정치권 관계자 상당수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탈락한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천 의원이 신당 작업에 착수할 경우 인재영입 및 발굴이 선결 과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면목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일 광주시 서구 서창향토문화마을에서 어르신들에게 지난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주승용 "물러나지 않겠다면 친노패권 청산을"

새정치 비주류 최고위원들 文대표에 정면반기

4·29 재보선 후폭풍 증폭

최고위원회의 수습책 충돌

4·29 재보선 전패 후폭풍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당내 비노(비노무현) 진영에서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표에게 반기를 드는가 하면 사퇴 요구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 대표가 광주를 방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혁신과 변화를 약속했지만 재보선 패배 후폭풍 수습 방안을 놓고 당내 시각차가 크다는 점에서 계파 갈등이 폭발하는 등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재보선 패배 후 처음으로 열린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번 선거 결과에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물러나지 않겠다면 최소한 패권정치 청산 약속 등 구체적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고 문 대표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당 대표가 되면 친노(친노무현) 진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친노가 불이익을 받았느냐"며 "민심 봉합이 아니라 새 판을 짠다는 각오로 수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당무와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최고위원으로서 들러리밖에 서지 못한 데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며 문 대표를 겨냥했다.

이에 지명직 최고위원인 추미애 의원은 "자괴감이 느껴진다.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정면 반박에 나섰으며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금 친노가 어떠니 호남이 어떠니 하는 '남 탓'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지도부 내에서도 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해법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계파 갈등 양상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표를 겨냥한 사퇴론의 불길도 꺼지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내가 문재인 대표라면 그만 두겠다"며 "그것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정치인은 선거에서 패배하면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을 갖춰야 좋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김한길, 안철수, 손학규 전 대표 등 지금까지 보궐선거에 진 대표들은 다 물러났다"며 "(문 대표) 본인의 긴 장래를 위해서도 그게(물러나는 게) 상당히 득이 될 것"이라고 사퇴를 요구했다.

정 고문은 "새정치연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하지 못해서 총선이나 대선에 희망이 없다고 보여진다면 큰 개혁이 필요하고 그 한 방법으로 신당도 필요하다"고 신당론을 제기했다.

특히, 친노 진영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구 민주계와 호남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당론의 원심력도 가속화되면서 내부의 동요도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대론 총선도 대선도 필패 당 혁신 안되면 신당도 염두"

박주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은 4일 "당 혁신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신당 창당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 패배가 불보듯 뻔하다"며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십수명에 달하고 이들과 신당 창당까지 염두에 두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려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금 당이 변하지 못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머물러 있을 명분이 없다"며 "동료 의원들과 신당 창당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진 않았지만 이렇게 가면 수도권에서 전멸한다는 위기감은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4·29 재보궐서거에서 당선한 천정배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이탈한 민심을 받아들이는 광주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보수와 건전한 진보가 융합하는 중도 개혁 정당이 되는 것이 정권교체의 첩경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역할을 잘못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새누리당으로부터 정권을 빼앗아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천정배, DJ묘역 참배 연기

7일로…동교동계 만남 불발

내일 이희호 여사 예방

야권 재편의 '태풍의 눈'으로 주목받고 있는 천정배 의원과 신당론 확산에 나서고 있는 동교동계와의 5일 만남이 불발됐다.

4일 천정배 의원 측은 당초 5일로 예정됐던 서울 동작동 국립 현충원 내 김대중(DJ) 묘역 참배 일정을 7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광주에서 급한 개인 일정이 생겨 DJ 묘역 참배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며 "정치적 이유 때문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 부담 등의 이유가 있었다면 애초에 5일 참배 일정을 잡지 않았을 것"이라며 "7일 DJ 묘소를 참배할 것이며 동교동계와도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참석차 상경한 뒤 이날 오후 동교동 사저로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도 예방할 예정이다. 이 같은 천 의원의 행보는 야권의 '적통'을 자임하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